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소망: 몸의 부활

성경말씀: 고전15:35-49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절의 변화를 주심. 이것이 얼마나 복된지 봄이 되면 알 수 있다.

죽어 있는 것 같은 나무나 여러해살이 꽃에서 싹이 난다.

또한 한해살이 꽃들의 경우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아름다운 꽃이 핀다.

곡식 알갱이도 마찬가지다. 싹이 나고 결국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 이 형상에는 이해력과 통찰력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의 사람들을 방문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 대신 속죄를 통해 인간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제거하는 것

복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을 보여 주고 확증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

이 일을 위해 데모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땅에서 일어나신 이 일을 하나님은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에 하지
않고 봄에 하셨다.

즉 만물이 소생하는 봄, 그것도 4월 중순경에 하셨다.

유대인들의 절기가 많다.

니산월(정월) 14일, 유월절, 어린양

니산월 17일,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

1월 니산월은 태양력의 4월을 말한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4월에 일어나도록 정하셨다.

왜? 죽음은 어느 때에 있어도 되지만 부활은 반드시 봄에 있어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부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 계절의 변화, 모든 사람이 만물이 소생함을 보는 시즌, 그래서 사람도 부활한다는 것을 알리기에
가장 좋은 시즌이 바로 4월 중순경이다. 그래서 전 세상의 모든 교회는 4월 중순경을 고난과 부활
주간으로 정하고 부활 주일을 지킨다. 미국 사람들은 이 주간을 holy week라고 한다.

참고로 인류의 다수인 90%가 북반구에 산다.

오늘 < >,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보여 주시는 몸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고린도전서 15장과 부활의 위로

하나님은 성경에서 몇 장을 특별한 목적으로 기록하시면서 어떤 주제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신다.

히11장: 믿음, 살전4장: 재림과 휴거, 롬8: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의 불변성, 고전15장: 부활
우리는 다 땅에서 고통 중에 살고 있다. 특별히 요즘 올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대통령 탄핵 이후
과연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두고 심각하고 고민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나도 육신을 가진 사람, 공산주의자/사회주의자나 배신자가 이 나라를 다스리며 나라를 다 망치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고 싶지 않다. 내 부모가 애써서 만든 좋은 것을 망쳐서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로 만들어
자식들에게 주고 싶지 않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하다.

더욱이 교회에 대한 핍박이 얼마나 심할 것인가?

그런데 아무리 간구해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히11장, 믿음 장 1-34절,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예

35-38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지만 세상에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사람들의 예

즉 동일한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어떤 성도들은 인생에서 일이 잘 풀림

나머지는 동일한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인생에서 일이 잘 안 풀림

그런데 이들 모두가 동일하게 믿음의 삶을 살았다.

그 믿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12:1-2

예수님도 믿음의 삶을 사셨는데 후자의 삶이었다.

그런데 그 끝이 무엇인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앉으시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 기독교의 가장 큰 소망: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죽지 않고 몸이 홀연히 변화되는 휴거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죽어서 썩은 몸이 부활하는 것
특별히 요즘과 같이 국가가 혼란에 빠져 죽고 싶은 생각이 날 때,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부활과 휴거이다. 오늘 살펴볼 부활은 그냥 하나의 이상적인 도피처, 희망 고문이 아니라 우리 앞에 펼쳐질 현실이다.

특별히 지금과 같은 고난의 때에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면 얼마나 힘이 되는 모른다.
이 땅이 끝이 아니다. 심판받을 자들이 반드시 심판받고 영광을 받을 자들이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는 일이 반드시 온다. 왜?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의로움을 보지 못해도 결국 영원토록 의로움이 거하는 데서 살게 된다.

바울의 부활 증언

기독교를 가장 기독교답게 만드는 것: 몸의 부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부활에 대해 말도 꺼내지 못한다.

왜? 사람이 만든 것들이므로

구약성경 몸의 부활 읊기 19장, 다니엘서 12장

그러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다수는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정치 실권을 잡은 사두개인들은 영, 천사, 부활 등을 믿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였다.

예수님이 오셔서 강조하신 것: 부활, 요5:28-29, 요6:44, 요한복음 11장 25-26절

바울이 살던 로마 시대: 그리스 문화

특징: 이 땅이 끝이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된다. 어떻게 죽은 사람, 썩은 사람의 몸이

부활할 수 있느냐? 시장의 장사꾼이나 높은 교육을 받은 철학자들이나 다 동일한 생각

32절 하반부: 내일 우리가 죽을 터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인생을 최대한 즐기라, 쾌락주의자가 되어라,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빨아먹어라, 모든 욕망과 갈망을 충족시켜라. 네 몸은 썩어서 되돌아오지 않는다.”

바울의 대답: 33-34절

이러다보니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

12절

13-19절

19절처럼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들이다.

부활에 대한 회의론자들의 주장

35절: 두 가지 질문, 1.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느냐? 2. 그들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

“대체 어떤 힘에 의해 성도들이 부활하고 어떤 몸으로 그들이 올 것인가?”

부활을 부인하는 회의론자들에게는 부활이 너무도 어리석게 보인다.

그들은 죽음을 보고, 썩음을 보고, 부활이 있을 수 없다고 결론짓는다

사람을 묻으면 몸이 썩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일반적인 흙 속 매장의 경우 1~2년이면 대부분 뼈만 남는다고 알려짐. 고대 사람들도 다 알고 있음. 그것은 어리석게 보였다.

“그렇게 썩은 몸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는가?”

또 어떤 경우에는 몸이 묻히지도 못하고 사라진다.

1. 불에 타서 재가 된다(화장).

2.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의 밥이 된다.

3.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된다.

자 이런 사람들의 몸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들이 부활하는가?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다. 하나님을 사람 수준에서 생각하지 말라.

바울 사도행전 26장 8절에서 아그립바 왕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하시나이까?”

36절: 그래서 바울은 직접적으로 대답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하나님은 흠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분,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
너 어리석은 자여. 왜 짐승처럼 이성이 없느냐?

34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죽으면 다 재가 되고 결국 사람의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고 하면 죄에 대한 보복이 없을 것이며, 심판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쾌락주의적 삶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철학이다.

우리가 다시 살지 않는다면 거룩하게 살 이유가 없다.

영원한 책임이나 영원한 보급에 대한 희망이 없다.

몸의 부활에 대한 바울의 네 가지 논증

바울은 몇 가지 논증을 제한다.

1. 비유(36-38절)

그는 먼저 씨앗의 비유를 든다. 즉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어떤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말 명확하고 강력하며 도움이 되는 비유나 예시이다.

씨앗은 봄에 땅에 심는다. 그런데 어떤 씨앗이든, 모든 씨앗은 땅에 심긴 뒤 죽고, 썩는다(분해된다).

그리고 그 분해된 씨앗에서 부활의 생명이 나온다. 그 식물이 자라나고, 그 식물은 씨앗과 전혀 다른
종류의 몸을 갖는다.

어떤 씨앗을 보고 그 식물의 부활한 몸이 어떻게 생겼을지 알 수 없다. 또한 식물을 보고 씨앗이 어떻게
생겼을지 알 수 없다.

버들마편초 씨앗을 뿌렸다. 씨가 0.5mm. 거기서 여름이 되면 1미터 길이의 보라색 꽃을 가진 식물이
나온다. 백일홍 씨를 심는다. 더 크다. 7-8mm, 그런데 0.5-0.8미터 길이의 노란, 빨간, 분홍색
꽃을 가진 식물이 나온다.

씨앗은 죽음을 통해 분해되고 썩은 후 다시 솟아오르며, 그 차이는 매우 크다.

차이는 모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피와 특성에도 있다.

씨앗이나 꽃(나무)이나 유전적인 특성은 같지만 씨앗에서 나오는 몸은 씨앗 자체의 몸과 완전히 다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죽어서 부패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뒤에 동일한 특성을 가졌지만 완전히 다른 몸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

즉 동일한 생명, 동일한 사람이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몸이 죽은 뒤 다른 형태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도토리가 죽어서
참나무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바울의 주장: 우리가 죽어서 몸이 썩고 분해되는 것이 부활의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38절: 하나님은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모든 것에 서로 다른 몸을 주신다.

옥수수, 밀, 쌀, 밤, 도토리, 다 하나님이 주시는 몸을 갖는다.

공통적인 것: 씨앗이 죽어서 썩고 부패되어야 한다.

37-38절의 요점: 하나님이 땅의 모든 산물에 각자의 형태를 주셨다면, 왜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의
몸의 부활에 대한 형태를 결정하지 못하시겠느냐?

이것은 무리한 추론이 아니다.

더욱이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다. 추하고 거친 씨앗에서 언제나 아름다운 꽃과 나무와 열매가 나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추하고 더럽고 죄성으로 가득하지만 부활하면 아름답고 영화롭고 죄를 모르는
몸이 될 것이다.

2. 다양한 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39-41절)

반대 의견: 한두 명 부활도 어려운데 어떻게 수십억의 사람들을 부활시키고 다른 몸을 줄 수 있을까

지구에서의 예시(39)

우주에서의 예시(40-41)

이런 예시들은 하나님이 다양한 몸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분이심을 보여준다.

모든 꽃은 다 독특한 꽃이다. 모든 동물은 다 독특한 동물이다.

두 사람도 같지 않으며, 두 식물도 같지 않으며, 두 동물도 같지 않으며, 두 꽃도 같지 않으며,
두 풀잎도 같지 않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엄청난 이해할 수 없는 창조적 능력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부활하면 모두가 동일한 개성을 가진 로봇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독특한 존재가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 모습 등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알아볼 것이다.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것: 죄를 모르는 인간으로, 내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남편으로
“그럼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대답은 당연하다이다.

왜? 부활해서 영화로운 몸을 입으면 본질적으로 모든 것을 알게 된다.

3. 현재의 몸과 부활한 몸의 대조(42-49)

드디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42-44절 읽는다.

그것은 ...여기의 그것은 몸을 말한다.

썩는 것과 썩지 않는 것: 우리의 몸은 썩지만 부활한 몸은 썩지 않는다.

대다수 사람들의 반론: 썩는 것 즉 부패가 문제이다.

바울의 대답, 부패를 통해 생기는 부활의 몸은 절대 썩지 않는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것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패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죽음으로 부패가 완성된다.

<모든 질병의 황제: 암의 생애>라는 책이 있다. 저자는 시드하르타 무케르지(Siddhartha Mukherjee)라는 인도계 미국인 의사이자 암 전문 의사(종양내과 의사, Columbia University 교수)이다,

그 책의 저자, 암의 역사와 암과의 싸움의 역사를 무려 600쪽으로 기록함. 결론 “우리는 결코 암을
정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암은 부패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인간으로 정의하
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부패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부패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부패를 통한 부활이 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최후 승리이다.

43절 수치와 영광의 대조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했더라도, 죽음 앞에 서면 부끄러움을 당한다.

아름다움과 젊음과 힘과 권력과 영향력까지 모두 사라진다.

요양원을 방문해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미국 방문 노인 친지들 방문
가장 뛰어난 사람들도 완전히 수치스러운 상태에 처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 육체적 측면에서 수치를 당할 것이다.

장례식장에 가 보라. 미국의 경우 Viewing service

그들은 시신에 존엄성을 부여하려고 얼굴 화장, 좋은 옷으로 입히고, 아름다운 관에 넣는다.

왜? 죽음이 수치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입관식에 가 보라.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우리는 영광 가운데 부활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대로,
완전한 인간의 영광을 가진 존재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 부활한다.

43절: 연약함과 권능

죽은 몸보다 더 약한 것은 없다.

우리는 살아 있을 때조차 약하다. 삶이 계속될수록 더 약해진다. 우리는 질병, 마음의 아픔, 실패,

상처에 노출된다.

우리는 약점을 이기지 못한다.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 결국 죽음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권능 가운데서 부활한다.

우리는 영원한 권능, 신성한 권능,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생성되는 권능을 지니고 부활할 것이다.

패배의 아픔, 실망의 쓴맛, 실패의 수치, 죄에게 패배하는 것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54절처럼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44절: 이 모든 것을 요약하는 말씀, 본성에 속한 몸과 영에 속한 몸

지금 땅에서는 본성에 속한 몸

그러나 그 몸이 부패되면 하나님이 그 몸을 가지고 영에 속한 몸을 만들어 주신다.

영이 아니라 영에 속한 몸, 즉 영적인 영역에 적합한 몸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몸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을 입게 될 것이다.

45절: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비교, 가장 큰 차이 46절 순서

47절: 첫째 아담: 본성에 속한 몸을 줌, 죄, 연약함, 수치, 부패

48절: 둘째 아담: 영에 속한 몸, 의, 권능, 영광, 썩지 않는 것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하늘에 속한신 그분의 같게 된다.

47절: 첫째 아담은 땅에 맞는 생명을 주었다. 우리는 모두 아담에게서 나왔으며, 아담의 허리 속에 모두 있었고, 모두 아담과 이브에게서 나왔으며, 아담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본성이다. 우리는 아담과 같다. 아담은 죄를 지닌 자연적 몸에서 인간의 자연적 생명의 원형이다.

48절: 반면에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영에 속한 몸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영적 생명의 원형이다.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 맞는 생명을 주시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과 같은 몸을 입을 것이다.

요한일서 3:2

영에 속한 몸은 존재하는 몸;

하나님이 인간에게 설계하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을 할 수 있도록 높여진 몸; 완전히 행복한 몸, 완전히 만족한 몸, 완전히 평화로운 몸, 완전히 충족된 몸, 고통이 없는 몸, 눈물이 없는 몸, 슬픔이 없는 몸, 울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찬란함으로 묘사된 몸, 눈부신 몸, 투명한 몸, 달과 별처럼 빛나는 몸, 하늘의 밝음과 같은 몸

결론

몸의 부활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소망

궁극적인 소망

지금처럼 어려운 때에 영원토록 부활의 몸을 가지고 사는 것을 기대하며 힘을 내서 살자.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